

내 삶을 바꾸는 힘, 규제혁신

지역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!

-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소개 -



국무조정실



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섰다!

산업 및 투자 유치 현장, 생활 속 불편 등을 해소한
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.



출처 : 행정안전부

[경기도 양주시]

“테크노밸리 유치에 성공했어요”

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‘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공모사업’에 신청했지만,
부지 일부가 ‘군사보호구역’이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.



경기도 양주시는 관군협력팀 신설 및 실무협의를 통해
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,
해당 부지의 **군사보호구역이 해제**되어 **‘테크노밸리 유치’에 성공**했습니다.
약 23,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^^

국방부,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·해제 현황 및 지형도면 고시 개정(2017년 12월 시행)



[인천광역시 강화군]

“농업용 드론으로 인력난을 해소해요”

인천광역시 강화군은 ‘군 관할 접경지역’이라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.



지역 주민의 탄원서 등 농업용 드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요청했고,
민통선(민간인 통제구역) 내 ‘농업용 드론’과 ‘공익목적용 드론’ 비행이 전면 허용됐습니다.

**농업용 드론으로 농약살포 등에 활용하면서
농촌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**하고,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유엔사 규정 95-3 개정(2018년 1월 시행)



[대구광역시]

“1톤 전기화물차를 생산할 수 있어요”

친환경 전기화물차는 적재중량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이 다르지만,
현재 규정에는 전기승용차와 기준이 동일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



‘대구지역 규제혁신 토론회’ 등을 통해 전기화물차의 적재중량에 따라
에너지소비효율 기준(산업부 고시)을 개정했습니다.

그 결과 **전기화물차 신제품 출시를 위한 공장설립**으로
고용창출 약 1,000명 이상, 투자유치 약 600억 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산업통상자원부,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(2017년 12월 시행)



[인천광역시]

“중소기업 30여 업체의 애로를 해결했어요”

공장 진·출입로가 경관녹지로 설정되어 있어
중소기업(30여 업체)에서 공장 신설이 불가능했습니다.



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합동회의, 현장조사 등을
실시했고 도시계획시설(경관녹지) 일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.

그 결과 **공장 설립을 통해 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
연간 2,0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고,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.**

인천광역시,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(2017년 7월 시행)



규제혁신을 통해
자치단체가 혁신성장의 훌륭한 밑바탕이 되고,
지역주민의 삶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
함께 나가겠습니다.

내 삶을 바꾸는 힘 **규제혁신**



국무조정실